

제주에 존재했던 위안소 무대에 살려낸 인간 존엄

예술공간 오이 창작극 제주연극제 3관왕 수상 '일곱 개의 단추' 재공연 7월 2~4일 설문대센터

지난 3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 그들의 무대를 떠올려 본다. 신작을 보기 위해 코로나19 속 공연장을 찾아 무대가 열리길 기다렸던 관객들, 나라를 잃고 개인의 인권마저 짓밟혔던 역사를 뮤지컬적 요소를 활용해 진지함 속에 웃음을 끌어냈던 배우들의 연기가 기억에 남는다.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예선을 겸한 제26회 제주연극제에서 공

연된 예술공간 오이의 창작극 '일곱 개의 단추'였다. 오이는 그 대회에서 연출상(전혁준), 신인연기상(김수민), 단체 우수상을 단번에 휩쓸었다. '일곱 개의 단추'는 오이의 첫 제주연극제 참가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주시 연복로에 있는 동명의 소극장을 중심으로 공연을 이어오던 그들이 대극장 무대를 처음 활용한 작품이었다. 오이의 서른네 번째 작품 '일곱 개의 단추'가 다시 한 번 관객들과 만난다. 1회 공연에 그쳤던 제주연극제의 아쉬움을 달래며 크라우드 펀딩, 회원 후원금, 자체 자금 등으로 공연비를 마련해 7월 2~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지난 3월 제주연극제에 참가했던 예술공간 오이의 창작극 '일곱 개의 단추' 리허설 장면.

제주 4·3 등 이 땅의 이야기를 꾸준히 공연으로 만들어오고 있는 오이의 이번 작품 역시 제주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주도에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했다고 밝힌 2019년의 증언과 논문이 창작의 계기였다.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전혁준씨는 그 자료를 보며 전쟁의 참혹함,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이 철쭉 같은 어둠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한 할머니가 지

나가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돌로 내리치는 사건이 일어나며 시작되는 '일곱 개의 단추'는 우리에게 잊혀진 이야기를 통해 결국 인간의 존엄을 말한다. 공연 일정은 7월 2일 오후 8시, 3~4일 오후 3시와 7시, 12세 이상 관람가로 러닝타임 90분이다. 관람료는 2만5000원으로 온라인 예매(네이버)만 가능하다. 전선희기자

“공무원 파견 요청 자율성·독립성 포기 선언”

재단 노조 철회 촉구 성명 “조직 내 적법한 절차 무시 원 도정 마지막 인사 앞뒤 승진 잔치 위한 거래 의심” 철회 시까지 1인 시위 등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25일 제주도에 1년 가까이 공식 중인 경영기획실장에 대한 공무원 파

견을 요청(한라일보 6월 28일자 8면)한 일에 대해 재단 노조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문화예술재단지회(이하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 파견 요청은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포기 선언”이라며 “이승택 이사장은 공무원 파견 요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공무원 파견 요청 공무원이 내부 소통은 물론 단 한 차례의 간부회의도 없이 이뤄진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을 요구한 기획홍보팀장의 결재를 누락하는 등 조직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선 7기 막바지, 원희룡 지사 중도 사퇴를 앞두고 이 루어지는 도정 인사 타이밍에 이사장이 들인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이를 실행한다면 우리는 원희룡 도정 마지막 인사의 승진 잔치를 위한 모종의 거래의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노조는 성명 발표와 함께 이날부터 파견 요청 철회 시까지 시위를 진행한

다고 밝혔다. 7월 1일까지는 오전 8~9시 출근 시간에 재단 건물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7월 2일부터는 노조 조합원 단체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재단 건물 외벽에는 파견 요청 철회 등을 촉구하는 문구가 나붙었다. 이날 노조는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공무원 파견 현황(3월 기준)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경영기획본부장, 사무처장, 행정지원팀장 등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곳은 설립 순으로 강원(2명), 전남, 충북, 전북(2명), 경북(2명) 등 5곳이다. 제주 설립 17년 만인 2017년 8월 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취지로 제주도와 협의 끝에 파견 공무원이 맡던 사무처장 직제를 폐지했다. 전선희기자

동네 책방서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

함덕32 주관 6~10월 5회 해녀·농부·시인 등 초청

동네 책방에 사람 사는 이야기가 모인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함덕32책방이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한 차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동네 책방 문화사랑방'을 이어간다. 이 프로그램은 동네 책방에서 사람

간 관계를 맺으며 일상의 행복과 삶의 문화를 직접 만드는 주민주체형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지역민의 문화 생산과 향유, 교류의 장으로서 동네 책방의 역할에 주목했다. 함덕32는 '2021 함덕온골-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란 이름으로 함덕에 사는 이들을 초대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람 책' 프로그램을 펼친다. 함덕의 문화, 역사, 생태 등을 책방 이용자와 나눌 수 있는 인물

로 출연진을 구성했다. 매 강의마다 오종협씨의 피아노 선율이 더해진다. 첫 일정인 이날 29일 오후 7시에는 '진정한 토박이' 함덕 4구 김평규 노인회장이 자리한다. 함덕에서의 삶과 인생, 마을의 변화와 환경에 얽힌 생각들을 풀어낸다. 7월 29일 오후 7시에는 '잠녀의 꿈'이란 이름으로 함덕 해녀가 함께 한다. 해녀의 삶, 바다에 대한 한솔한 사연을 청중들에게 건넨다. 8월 26일 오후 7시에는 '함덕의 순이삼촌'이란 제목으로 김관후 시인이 '4·3과 나의 인생'을 나눈다.

함덕과 4·3, 그 후 마을이 걸어온 길 등을 들을 수 있다. 9월 30일 오후 7시에는 '나는 한라봉 지킴이' 함덕 농부 양근태씨를 만난다. 마을의 농업 환경, 가장으로서 농부의 삶 등을 이야기에 담는다. 마지막 일정인 10월 28일 오후 7시에는 함덕에 있는 책방 지기가 주인공이다. 책을 중심으로 마을의 문화생태환경 등을 꺼내놓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 전화(784-6600)나 이메일(hamdeok32@naver.com)로 신청할 수 있다. 행사장 주소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로 32, 2층. 전선희기자

여름 제주에서 즐기는 독립영화 축제

영화문화집단 청연화 '놀멍놀멍 영화 봄서...' 장·단편 14편 무료 상영

여름날 제주에서 장·단편 영화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마련된다. 청연화로 구성된 영화문화집단 청연화가 펼치는 독립영화 축제인 '놀멍놀멍 영화 봄서 페스티벌'이다.

이번 행사는 영화 제작, 소비, 상영의 선순환을 통해 영화문화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상영관이 없는 마을에서 관광객과 지역민이 영화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7월 3~4일 이틀 동안 서귀포시 성산읍 플레이스퀘어 제주에서 진행되는 페스티벌은 '다 같이 놀멍놀멍 바퀴'를 표어로 내걸고 총 14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단편은 '참을 수 없는 나의 영화' 등 4개의 섹션 아래 12편을 준비했고 장편은 2편을 볼

수 있다. 장편영화 상영작은 제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고두심·지현우 주연의 '빛나는 순간'(감독 소준문, 이하 팔호안은 감독), 아버지 묘 이장을 위해 오남매가 모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이장'(정승오)이다. 단편영화는 '24.5'(허지예), '인생은 실전이야 종만야'(류지운), 'OK, 탑스타'(이건희), '유마선이 부릅니다, 유어 마이 선사인'(정유원), '카라멜라이즈'(김홍근), '각자의 입장'(강경영), '조인성을 좋아하세요'(정가영), '시체들의 아침'(이승주), '바다의 양식'(고이든), '슈팅당거의 냥이들'(서윤수), '보강촬영'(임현희) 등으로 구성했다. 시간표 등 자세한 내용은 청연화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cheongyeonhw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를 관람하려면 SNS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장편 상영작 중 하나인 정승오 감독의 '이장'. 사진=청연화 제공

문화가 쏙지

챔버 발레 '백조의 호수'

제주아트센터가 7월 9~10일 창립 37주년을 맞은 유니버설발레단을 초청해 해설이 함께하는 '백조의 호수' 공연을 펼친다. '백조의 호수'는 호숫가 장면의 백조 군무, 왕궁의 화려한 세트와 의상 등 드라마틱한 내용과 불거리가 있는 클래식 발레다. 제주 무대는 챔버 발레로 줄거리와 무관한 춤을 생략하고 소규모 형태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 발레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설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문훈숙 단장이 맡는다. 일정은 7월 9일 오후 7시 30분, 10일 오후 2시.

서귀포 세대공감 뮤직 쇼

서귀포예술의전당과 문화도시서귀포 공동 기획으로 7월 10일 오후 5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2021 세대공감 모다들영 뮤직 쇼'가 열린다. 대중 가수 콘서트로 꾸미는 이날 공연에는 '널 그리며', '사랑의 불시착' 등 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박남정,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주인공들이 부르며 재소환된 '아로하'의 '롤' 멤버 이재훈이 초청됐다. 관람권은 1층 1만5000원, 2층 1만원. 서귀포시 E-티켓 사이트에서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예매할 수 있다.

석재부

- 불상전문제작 (제주중문에서)
- 비석→ 직접가공 및 설치
- 석물→ 일절완비
- 돌하루방, 물허벅, 해녀상 일절가공
- 제주 전시장 (중문고등학교앞)
- 납골묘, 평장묘 전문

장례부

- 1) 1급 장례지도사 5명 보유
- 2) 장의차량 리무진 및 장의차 7대 보유
- 3) 제주의료원 협력업체
- 4) 서귀포의료원 협력업체
- 5) 24시간 출동 대기
- 6) 장례용품, 도우미
- 7) 매장 및 화장, 이장

대표 박복현 010-3698-0402, 010-3693-4333 E-mail. qhrgus4333@hanmail.net

중문 석재 장의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34-5 Tel. 064-738-4333 Fax. 064-738-4336